

4월 우리동네

활동기간 : 2018년 4월 2일 ~ 2018년 4월 27일

〈주제선정이유〉

'우리동네' 주제는 유아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으며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또한 이웃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살펴보기에 적합한 주제입니다. 이에 동네의 친근한 모습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하여 동네 생활공간을 알고 활용하며 동네에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공동체의식 가질 수 있도록 '우리동네' 를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교육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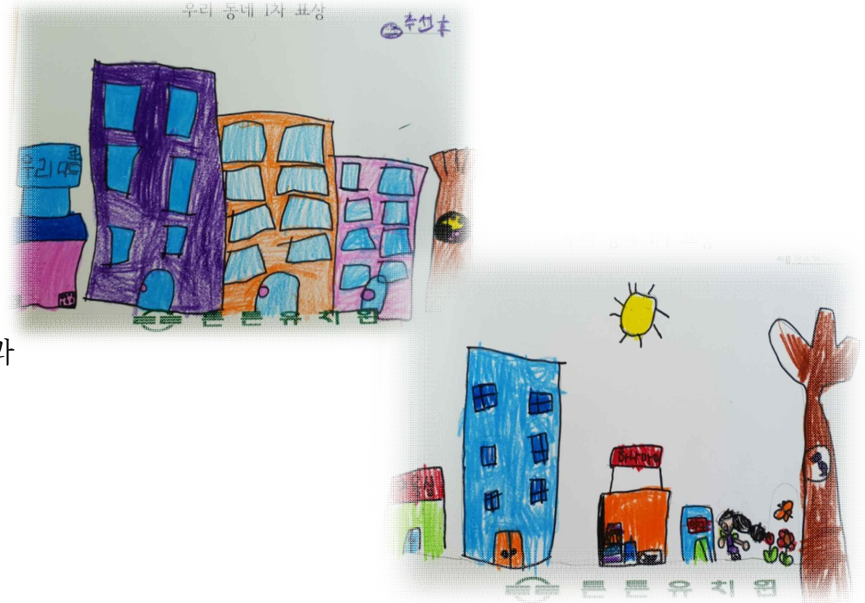
1. 우리 동네의 모습과 원의 지리적 위치에 관심을 가진다.
2. 우리 동네에 있는 다양한 공간과 공공기관에 대해 알아본다.
3.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을 알고 다양한 직업을 경험한다.
4. 우리 동네의 자랑거리에 관심을 갖고 알아본다.
5. 우리 동네의 정보를 신문으로 제작하며 동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





◀ 우리 동네 1차 표상

유아들이 살고 있는 집 주변과
유치원 주변을 떠올리며
우리동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바깥놀이) 우리 동네 산책하기

유치원 주변을 산책하며 다양한 상점과 다양한 직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점의 간판은 어떻게 생겼는지 관찰해보며 상점마다 하는 일을 알아보고 직접
여쭙보며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길에 있는 다양한 표지판도 탐색해보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표지판인지도 알아보며 안전하게 골목길을 산책하는 방법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동네 관심가지기>



◀ 조형) 우리동네 건물 만들기

재활용 박스를 이용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상점을 만들고 가게를 나타내는 마크, 이름, 전화번호를 만들었습니다.

▼ 미술) 클레이로 집 만들기

우리동네에 있는 다양한 집들의 형태를 알아보고 나만의 집을 클레이로 구성해 냉장고에 붙일 수 있는 자석으로 만들었습니다.

▼ 바깥놀이) 어디까지 왔니

‘어디까지 왔니?’ 라는 전래동요를 배운 후 유치원 주변의 여러 가지 상점들의 이름을 넣어 전래놀이를 했습니다. 메기는 소리와 받는 소리를 통해 전래놀이에 관심 갖고 유치원 주변 상점들을 회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 **집배원 놀이**

우리동네 여러 기관에 대해 알아본 친구들은 우체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직접 편지를 써서 배달하는 게임도 하고 선생님들께 편지를 배달해보며 우체국과 집배원 역할을 직접 체험해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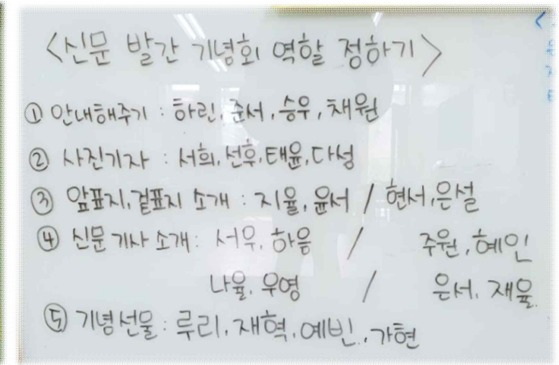
▼ **견학) 서울 지방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으로 견학을 가 교통경찰관의 역할과 교통안전 약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찰관 하면 '도둑을 잡아주는 분'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견학을 통해 교통 경찰관분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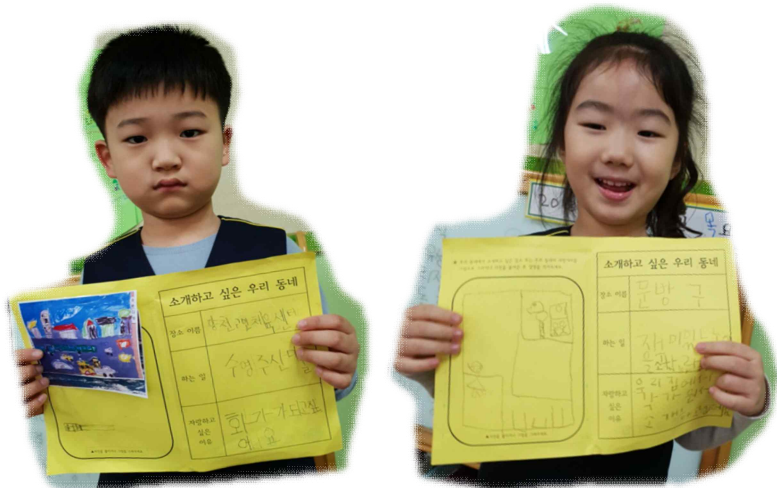
<우리동네 소개 & 신문발간 기념회 준비>

<마무리>



가정연계활동) 소개하고 싶은 우리 동네

'우리동네'에 대해 알아가다 보니 더욱 궁금해지는 장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동네에서 내가 더 알아보고 싶은 장소를 가정에서 조사하고 친구들에게 발표해보며 우리동네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신문발간기념회 준비

우리동네 주제를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신문을 제작하고 발간 기념회를 열기 위해 간판꾸미기, 포스터 만들기, 초대장 만들기 등의 역할을 정했습니다.

<신문발간 기념회>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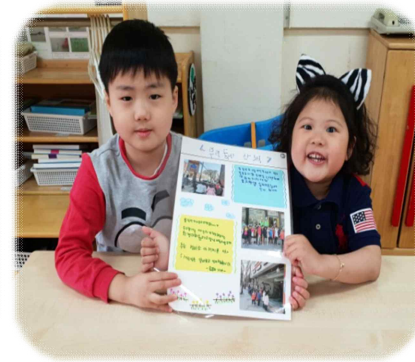
<안내팀>



<앞표지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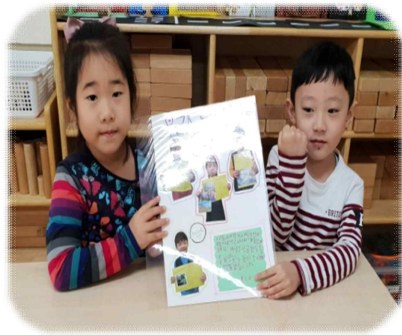
<뒷표지팀>



<산책팀>



<집배원팀>



<자랑거리팀>



<경찰서팀>



<만화팀>



<간식팀>



<교사 소감>

'우리동네'에 대해 배워보며 지역사회에 관심 갖고 다양한 기관과 직업들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동네에 대해 알게된 것들을 신문으로 제작 해봄으로서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방법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알고 수행해 나가는 풀잎반 친구들이 되기를 응원합니다.